

진화의 다음 단계, 어떤 운명을 선택할 것인가

호모 데우스

유발 하라리 지음

7만여 전 아프리카를 떠나 세계 각지로 퍼져나간 영장류 호모 사피엔스가 어떻게 지구라는 행성의 주인이 됐을까? 이스라엘 하브리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유발 하라리는 '호모 사피엔스'를 통해 인류가 지구를 지배하게 된 틀로 인지혁명(우리가 똑똑해진 시기), 농업혁명(자연을 길들이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게 만든 시기), 과학혁명(우리가 위협할 정도의 힘을 갖게 된 시기)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그러면 인류의 미래는 유토피아일까, 아니면 디스토피아일까? 유발 하라리는 '호모 데우스'(Homo Deus- 신이 된 인간)에서 '인류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는지'를 질문한다. '데우스'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로 신(神)을 뜻한다.

이 책은 ▲호모 사피엔스 세계를 정복하다 ▲호모 사피엔스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다 ▲호모 사피엔스 지배력을 잃는다 라는 주제로 나뉜 인류의 미래 모습을 찾아가는 대장정을 시작한다.

저자는 지나온 인류 역사를 규정하는 키워드로 굶주림과 전염병, 전쟁을 꼽는다. 이를 인류가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경이로운 경제성장' 덕분이었다.

저자는 "전례없는 수준의 번영, 건강, 평화를 얻은 다음 인류의 다음 목표는



유발 하라리는 "짐승수준의 생존투쟁에서 인류를 건져올린 다음 할 일은 인류를 신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호모 사피엔스'를 '호모 데우스'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한다. 디스토피아적인 미래 도시에서 벌어지는 자본가와 노동계급간의 갈등을 그린 1927년 무성영화 '메트로폴리스'(Metropolis).

과거의 기록과 현재의 가치들을 고려할 때 불멸, 행복, 신성이 될 것"이라며 "집승 수준의 생존투쟁에서 인류를 건져 올린 다음 할 일은 인류를 신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호모 사피엔스'를 '호모 데우스'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한다.

인류가 침팬지와 달리 수렵채집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문명을 일군 요인은 높은 지능이나 뛰어난 도구제작 능력이 아니라 '여럿이 소통하는 능력'에서 비롯됐다. '여럿이서 유연하게 협력할 수 있는' 소통과 협력의 오늘을 인류를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불멸과 행복은 신만의 영역일까? 미국 영화감독 우디 앨런은 '은막(銀幕)에서 영원히 살기를 바라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나는 내 아파트에서 사는 게 더 좋다. 나는 작품을 통해 불멸을 얻고 싶지 않다. 죽지않음으로써 불멸을 얻고 싶다."

인간이 노화와 질병을 극복하고 '행복'과 '불멸'을 추구하는 것은 성능을 업그레이드해 신이 되었다는 것으로, 생명공학과 사이보그 공학(인조인간 만들기), 비(非)유기체 합성과 같은 과학기술이 뒷받침할 것이다.

저자는 인본주의 혁명 등 인류의 과거 역사 사례를 들려주며 과학기술이 지배할 미래의 모습을 찾아나간다. 그러나 AI(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인류 미래상은 밝지만은 않다. 또한 19세기 산업혁명이 '도시 프롤레타리아'라는 신중계급

을 탄생시켰다면 21세기는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일하지 않는 사람들'(쓸모없는 계급)이라는 거대한 규모의 새로운 계급이 생길 것으로 예측한다. 신용 종교로서 데이터를 송배하는 '데이터교'도 등장한다. 사회제도에 따라 데이터를 나누어 처리할지, 중앙에서 모두 처리할지 모른다.

이 책은 20만년전 지구에 등장해 자신의 행성 주인이 된 '호모 사피엔스'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의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각종 정보과학기술이 인간 자유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독자들에게 진지한 의문표를 던진다.

<2만2000원·김영사>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일상기술 연구소=좋은 일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여보는 팟캐스트 '일상기술 연구소'의 해법을 모은 책. 돈 관리의 기술부터 일 벌이기의 기술, 배움의 기술, 독립의 기술까지 하루하루 마음속을 파고드는 불안을 관리하고 좀 더 만족스러운 일상을 꾸리기 위해 필요한 10가지 핵심 기술을 모아냈다. 자기만의 균형감각으로 발 디딜 공간을 마련한 사람들, 중심을 잡고 자립한 인물들이 가진 핵심 기술이 흥미롭게 펼쳐진다.



<어크로스·1만5000원>
▲공인의 품격=세계 각지의 역사 속에 나타난 존경받는 지도자들의 감동적인 일화들을 소개한다. 지도층의 책임 있는 태도와 행동이 국가의 흥망을 결정짓고, 사회의 발전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역사 속에서 살펴볼 수 있다. 자신의 생명과 명예가 걸린 극한 상황에서도 공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한 사람들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통해 리더의 자질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유아이북스·1만5000원>
▲사자가 삼촌 어미를 먹고=어른을 넘긴 사회학자 환완상이 80년간의 한국 정치사회사 그 속에서 본인이 겪었던 개인사를 회고하며 젊은 세대에 전하고픈 이야기들을 담았다. 민주화 운동을 하며 겪었던 일들에서부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요직을 거치며 한국 사회 통일, 외교,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겪었던 일들에 이르기까지 노학자가 젊은 세대에게 전해 주고 싶은 우리 사회에 대한 생각들이 담겨 있다.
<후마니타스·1만7000원>

▲인문학의 거짓말=인문의 출발과 고대의 인문에 대한 이야기. 인문학이 필요한 이유는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다. 인문이 모든 인간의 문화를 뜻하는 이상 민주적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고 차별하고 배제하는 비민주적 사상을 인문이라고 할 수 없다. 저자는 민주주의를 배신하는 인문학은 백해무익하다고 말한다. <인물과사상사·1만9000원>
▲고공 신분 사회=정규직, 파견직, 계약직, 시간제 등 어떤 형태로 취업했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대우와 차별을 받는 현대 사회는 고공 신분 사회라 할 수 있다. 모두가 평등하다는 현대에 왜 신분제가 부활하게 된 것일까. 책은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계층이 세분화되면서 심각한 격차가 존재하는 신분으로 고착하는 현상을 풍부한 데이터와 통계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고공 신분 사회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갈라파고스·1만5000원>

사회주의 혁명 속에 살아간 러시아 민중들의 숨결

로자의 러시아 문학 강의 20세기

이현우(로자) 지음

1917년 러시아에서는 2월 혁명과 10월 혁명이 연달아 일어났다. 지구상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라는 새로운 체제가 탄생했고 이는 러시아의 모든 것을 바꿔 놓았다. 문학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문학 평가의 기준은 사회주의 이념에 얼마나 잘 부합하느냐가 되었고, 반동적이라는 낙인이 찍힌 작가들은 작품 활동을 통제받기에 이르렀다.

1958년 반체제적인 작품으로 노벨문



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파스테르 나크는 국외 추방을 면하기 위해 노벨문학상 수상을 거부할 수 밖에 없었고, 1970년 솔제니친은 노벨문학상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결국 1974년 추방당하고 만다. 이처럼 혁명과 이념의 문제는 작가들의 작품과 인생에 강한 영향을 미쳤고 그것이 20세기 러시아문학을 규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 최초 사회주의 혁명이었던 러시아 혁명이 100주년을 맞는 2017년, 시대의 고민과 아픔을 누구보다 깊이 고민했던 러시아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본다. '파워 리더' 로자 이현우가 펴낸 '로자의 러시아 문학 강의 20세기; 고리키에서 나보코프까지'를 통해서다. 2014년 '로자의 러시아 문학 강의 19세기'가 나온지 3년만이다.

20세기 러시아 작가들은 자의든 타의든, 이전과는 모든 것이 달라진 세계에서 저마다의 눈으로 시대를 그려냈다. 그들 중에는 체제의 권력자가 된 이도, 탄압받고 추방을 당한 이도, 숨죽여 살

거나 망명한 이도 있었다. 어느 쪽이든 이들의 작품을 읽다 보면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놓은 20세기, 그 중심에서 살아간 러시아 민중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책머리에서 러시아 근대문학의 시작이자 저자의 러시아 문학 강의의 출발점이 됐던 푸슈킨의 '예브게니 오네긴' 마지막 대목을 자신만의 생각으로 고쳐 읽는다.

"오, 운명은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서 데려갔던가! 가득 찬 인생의 술잔을 다 비우지 못한 채 인생의 축제를 일찌감치 떠나간 사람은 행복하여라. 인생의 소설을 다 읽기도 전에 흔쾌히 작별을 고했을 수 있었던 사람은 진정 행복하여라."
<현암사·1만5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어린이·청소년 책

▲판타스틱 한국사 1~3=조각난 정보를 하나로 모아 통으로 읽는 역사책.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와 자료, 각주 등을 최대한 자제하고, 모든 것을 하나의 글로 풀어내 하루하루 한 단원씩 읽어나가는 것만으로도 한국사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단편 소설을 읽듯 조금씩 차근차근 읽다 보면 한국사의 가닥이 보이게 된다.
<파란자전거·전 권 4만7000원>
▲작은 꼬마 원숭이의 아주 큰 모험=마르타 알테스의 새 그림책. 키가 작아서 고민인 꼬마 원숭이는 작은 키 때문에 늘 위험하거나 어려운 것 투성이다. 무엇이든지 해내고 싶었지만 키가 작아서 못하는 게 지긋지긋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밀림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기로 결심한다. <사파리·1만8000원>
▲빼빼기=권정생 동화의 정수인 생명과 평화의 사상을 담은 '빼빼기'를 그림책으로 새롭게 펴냈다. 화가 김환영은 잠정



병아리 빼빼기의 눈물겨운 일생을 한 권의 아름다운 그림책으로 완성해 냈다. 순진이네 식구에게 스며든 잠정 병아리 '빼빼기'의 눈물겨운 일생을 통해 생명과 평화의 의미를 곰곰이 되새겨 볼 수 있는 작품이다. <창비·1만5000원>
▲헬로 아틀라스=아시아에서부터 유럽, 북·중양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극까지 7개 대륙을 여행하면서 세계 곳곳의 언어로 인사말을 배울 수 있는 그림책. 영어에서부터 일본어, 독일어, 스페인어, 중국어, 베트남어뿐 아니라 오세아니아나 아메리카 작은 부족의 말까지 133개 국 126개의 언어가 들어 있다. <봄나루·2만원>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 (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락 볼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볼링장 16래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문의 010-3647-4747

상기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입니다

www.솔향기닷컴.com

www.naver.com 솔향기닷컴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닷컴.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솔향기닷컴에서는 항상을 진행중 그리고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눈,비오는날 9,900원)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